海外經濟情報 제2006-38호
2006. 5. 2

海外調査室 아주經濟팀
팀 장 고용수(5284)
차 장 이규인(5297)

중국 1·4분기 고성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국경제가 1·4분기 중 10.2%라는 예상외의 고성장을 기록한 데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유동성도 확대됨에 따라 투자과열의 재연 우려가 제기

중국당국은 최근 투자 증가 추세가 지나치다는 인식하에 대출금리 인상 및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토지공급과 대출을 제한하는 등 투자억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이에 따라 고정투자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겠으나 11차 계획에 따른 투자 확대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 성장률은 9%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1·4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10.2% 성장)

□ 중국경제는 1·4분기중 소비가 견조한 가운데 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전년동기대비 10.2%의 성장을 기록

* 당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4분기보다 낮은 9%대 후반으로 예상

— 소매판매는 농촌 발전계획 발표에 따른 농가의 소비심리 개선에 따라 농촌소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소폭 확대

○ 도시지역 소매판매 증가율이 0.2%p 상승한 데 반해 농촌지역 증가율은 0.4%p 상승

— 수출은 해외수요 호조 및 위안화 절상기대에 따른 조기 선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시 상승

○ 이에 따라 수입의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성장에 크게 기여

— 고정자산투자는 지방정부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쟁적인 투자 확대로 증가율이 크게 증가

○ 제조업 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는 가운데 운수·창고·통신업 및 수리·환경 관련 투자의 증가속도가 크게 높아진 데 기인

중국의 주요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GDP 성장률	9.9	9.9	10.1	9.8	9.9	10.2
소매판매	12.9	13.7	12.6	12.6	12.6	12.8
고정자산투자[1)]	25.7	22.8	25.4	26.1	25.7	27.7
수출	28.4	34.7	30.9	28.7	21.7	26.6
수입	17.6	12.2	16.0	19.7	22.1	24.8
산업생산	16.4	16.2	16.5	16.2	16.4	16.7
CPI	1.8	2.8	1.7	1.3	1.4	1.2

주: 1) 연초이후 누계기준

(투자 과열 우려가 다시 제기)

□ 성장률의 확대가 수출과 고정자산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당국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투자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

— 11차 5개년의 첫 분기부터 성장속도를 낮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는 정책방침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

○ 무역흑자의 대폭 확대 및 투자증가율의 상승은 정책당국이 안이한 판단으로 억제대책을 소홀히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당국은 1·4분기 중 무역흑자가 그다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31개 省중 16개 省의 투자증가율이 35%를 상회하는 등 지방 정부의 경쟁적 투자성향에 대한 대비도 미흡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6년중 수출과 투자 억제라는 정책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그간 진정되었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투자과열의 재연 가능성이 제기

○ 전체 투자증가율이 2004년 3·4분기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도시지역의 3월중 투자는 32.7% 증가하여 지난해 12월에 비해 8.5%p나 높아짐으로써 강력한 억제책이 없다면 투자과열이 다시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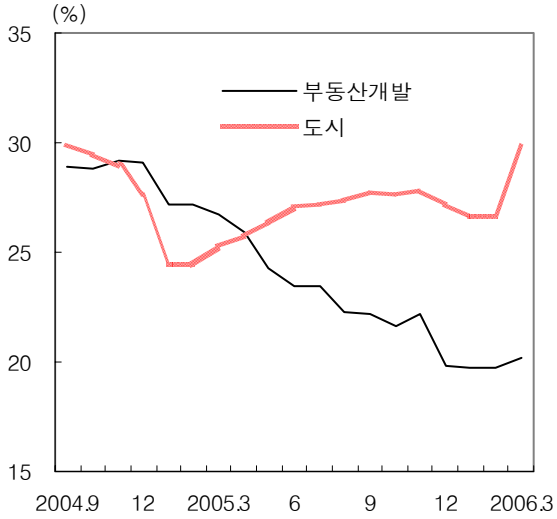
○ 특히 대출과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자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의 경착륙 우려도 대두

· 3월말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14.7% 증가하여 지난 연말(13%)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통화량 증가율도 연초 이래 19%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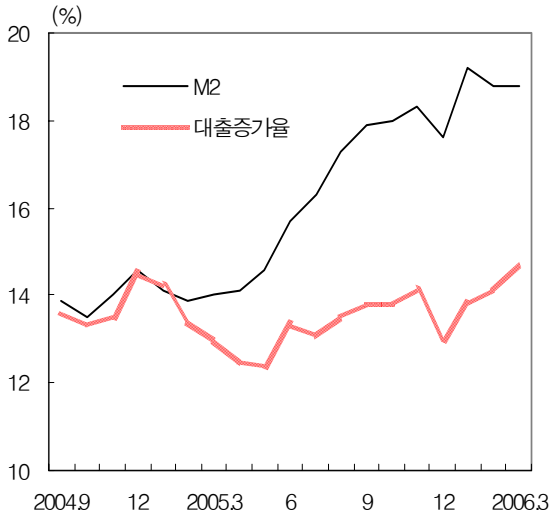
* 중국 금융계에서는 1·4분기중 신규대출 규모가 이미 연간 목표(인민은행)의 50%를 상회하는 등 대출 증가가 투자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세계은행 및 주요 연구기관들은 고정자산투자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부실채권과 과잉공급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급격한 경기후퇴 위험이 있다고 지적

고정자산투자 추이



총통화 및 대출증가율 추이



(당국의 투자억제 조치 시행)

□ 중국당국은 최근 투자 증가율의 상승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

— 원쟈바오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고정투자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

○ 사회과학원의 이시앤롱(易先容)은 고정투자의 빠른 증가가 중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투자억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

○ 국가통계국에서는 성장률이 다소 높기는 하나 잠재성장률 범위 내라고 평가하는 반면 투자에 대해서는 억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지적

—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토지공급 억제 및 금리 인상 등 투자억제 조치가 본격화

○ 4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과열업종에 대해 투자억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27일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

·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등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해 일정조건 미달 업체는 퇴출시키는 한편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공급을 제한

* 이는 2005년 12월 주요산업을 투자장려, 제한, 도태업종으로 구분하는 산업구조 조정촉진 규정의 부분적 시행방안으로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조치의 지연이 투자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

·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0.18%～0.27%p(1년 만기 5.58%→5.85%) 인상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의 과도한 증가 억제 및 투자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 억제 등을 창구지도

○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차 계획의 전국 성장률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한 지방정부에 대해 하향수정을 요구하는 통첩을 송부

· 11차 계획기간 중의 전국 성장률 목표는 7.5%이나 각 지방의 성장률 목표는 평균 10.1%로 이의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경쟁적 투자 확대가 연초 이후 고정투자 증가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

(고정투자 증가세는 다소 낮아질 전망)

□ 중국당국의 투자억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경우 고정투자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금리인상은 투자 가속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서 당국의 투자억제 의지가 확고함을 천명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

○ 중국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2004년 금리인상보다는 선별적인 대출억제 정책이 투자억제에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금번 금리인상도 투자억제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

○ 향후 금리인상의 투자억제 효과가 미흡할 경우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계속 취해질 전망

— 다만 연초 당국이 목표로 설정한 수준(18%)까지 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 당국이 필요한 부문의 투자는 지원하고 과잉업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소위 '有保有壓'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11차 계획에 따른 투자 확대 여지가 여전히 큰 상황

· 제조업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전혀 높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고정투자 증가율의 상승은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교통·운수,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 부문의 투자 확대에 기인

· 또한 최근 일련의 투자억제 조치의 효과도 하반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1] 추이

(전년동기대비, %)

	비중[2]	2004년		2005년				2006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2월	3월
전 체	100.0	29.9	27.6	25.3	27.1	27.7	27.2	26.6	29.8
제조업	27.3	41.7	36.3	25.6	35.1	36.1	38.6	35.4	36.3
부동산업	28.9	28.9	29.1	27.8	25.3	23.6	20.5	21.4	-
운수·창고·통신	10.6	21.9	20.2	28.4	24.8	26.3	22.3	40.8	29.6
전력·가스·수도	10.2	48.2	43.5	44.0	35.9	34.6	31.3	14.0	17.7
환경, 공공시설	7.1	19.7	14.4	18.2	17.2	24.2	22.3	5.2	22.3

주: 1) 연초 이후 누계기준 2) 2006년2월 기준

○ 중국 天則 경제연구소(Unirule Institute of Economics)는 2·4분기에도 고정자산투자는 26%의 높은 증가를 보이면서 GDP가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2006년 9%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06년 중국경제는 고정투자 증가율은 소폭 둔화하겠으나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데다 소비도 미약하나마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대 중반의 고성장을 보일 전망

— 중국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소득격차 및 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고성장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성장률의 저하는 원치 않음

○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11차 계획에 따른 농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수요 등에 따라 고정투자는 2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수출 억제 및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 민간소비는 농촌 발전계획 추진으로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대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4분기중 자동차 판매대수가 크게 증가(36.9%)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열풍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

— 대부분의 주요기관들은 2006년 중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여 9.0~9.6%로 전망

○ 정부산하 사회과학원은 고정투자의 증가를 반영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9.0%에서 9.6%로 상향 조정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대비, %)

	일자	수정전	수정후		일자	수정전	수정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06.4.12)	8.5~9.0	9.0	IMF	(06.4.19)	8.2	9.5
국가통계국	(06.4.12)	-	9.0	IBRD	(06.2.10)	8.7	9.2
국가정보센터	(06.4.6)	8.8	9.3	ADB	(06.4.6)	8.8	9.5
중국사회과학원	(06.4.25)	9.0	9.6	Lehman Brothers	(06.4.13)	8.7	9.0
Goldman Sachs	(06.4.12)	9.6	9.6	Morgan Stanley	(06.4.18)	7.8	9.5
Citibank	(06.3.22)	8.7	9.2				